

빠타라의 성 메토디오스 주교순교자 (6월 20일 축일) 2020. 6. 21

6월 20일을 교회는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리키아의 빠타라 지역 주교였던 성 메토디오스를 기억하고 축일로 지냅니다. 성 메토디오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황제들의 잔인한 박해 시대의 막바지에서 성 니콜라스보다 이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성인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기 드문 영적, 지적 재능으로 철학과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저술로써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성장토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살아있는 신앙과 어린 시절부터 참례한 신성한 예배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적 감수성이 가미된 문학적인 재능과 불꽃같은 열정으로 정통 신학과 교회관으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성인은 빠타라의 주교로 선출되었고, 주님께서 믿고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사목했습니다. 영감 받은 설교와 성스러운 삶으로 신자들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길을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서, 요청을 받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악명 높은 이단들을 물리쳤습니다.

빠타라 주교로서 하신 다양하고 인상적인 사목과 설교는 4세기 초까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권력자들에게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 메토디오스의 순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성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참수를 당함으로써 거룩한 영혼은 주님께 바쳐졌다고 전해집니다.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면서 흘린 피로 사제 제의를 빨강계 물들였던 성인의 순교 시기는 310년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성 메토디오스의 놀라운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두 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순결과 동정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성인은 이 주제를 '심포지엄, 순결과 관해서'라는 글에서 대담의 형태로 썼습니다.

이 저술은 지금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미덕이 사회자가 되어 열 처녀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를 위해 설정해 놓은 시나리오는 상징적입니다. 그중에서 순결에 대해 표현한 몇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정은 하늘의 미덕입니다. 동정은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동정’과 닮도록 인도해 줍니다.

- 동정이란 단어의 뜻은 ‘하느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이란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하느님과 연합하는 힘입니다.

- 동정과 순결은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럽혀진 혀를 사용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욕을 듣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아서 오만해지고 화를 내면, 비록 육신의 청결과 동정만을 지킨다고 해서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성 메토디오스는 동정을 찬양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결혼이 완전성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가진 의미를 낮게 보지는 않습니다. ‘꿀이 달콤하다고 다른 것이 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서로가 사랑을 확신하고 부부는 평생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은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성 메토디오스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악을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기 1:31) 세상에 악이 온 것은 사탄(에오스포로스)이 처음으로 자유 의지를 나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다른 천사들처럼 선한 천사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느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었고 그가 속했던 천사단의 모든 천사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유혹했고, 그 결과로 악령으로 변한 천사들은 지속해서 하느님의 사업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된 인간의 행복을 목격한 사탄은 질투가 생겨서 낙원에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자 인간의 시조에게만 악이 생긴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인 온 세상의 생태계에도 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첫 창조물이 죄를 지음으로써 악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로마 8:22)라고 적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 메토디오스의 가르침을 듣고, 순결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기로 하면, 우리는 이곳과 영원한 세계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 메토디오스 주교순교자의 증보를 통해 우리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